이베로아메리카 제13권 1호 [2011. 6] : 319~350

한국어와 스페인어 속담에 나타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찰

조 혜 진*
(Cho, Hye-Jin)

〈Abstract〉

El Rol de las Mujeres en el Refranero Coreano y en el Español

Los refranes son una forma de expresión que, a través del habla, difunden y transmiten la sabiduría popular y la tradición de un pueblo. Su papel más importante es el de dar consejos supuestamente correctos a los problemas que surgen en la vida cotidiana de una comunidad. Durante siglos, la cultura ha creado y heredado una serie de estereotipos sobre la mujer que persisten hasta hoy en día en el refranero y en la mente de los pueblos. El objetivo de este trabajo es reflexionar, a través de los refranes coreanos y españoles, sobre aquellos estereotipos relacionados con el rol asignado a la mujer en la sociedad. Según estos refraneros, la 'buena mujer' debe permanecer siempre en casa y desarrollar únicamente las labores del hogar. A diferencia de los varones, el mundo de las mujeres se centra en el espacio doméstico exaltando como roles principales el ser madre y esposa.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E-mail: hjflex@hanmail.net

[Key words: Refranes Españoles/ Refranes sobre las Mujeres/ Mujer Ideal/ Discriminación Sexual]
[주제어: 스페인어 속담/ 여성 속담/ 이상적인 여성/ 성차별]

Ⅰ. 서론

'진실 아닌 속담이 없고 미치지 않은 2월도 없다(Refranes que no sean verdaderos y Febreros que no sean locos, pocos)'. '백 개의 속담, 백 개의 진실(Cien refranes, cien verdades)', 'No hay refrán que no diga una verdad, si uno no, es porque dice dos(하나의 진실을 말하지 않는 속담은 없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두개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말 그른 것 하나 없다' 등 대대로 속담은 그 자체로 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언중(言衆)의 생활과 문화 속에서 속담은 민간에 전승되는 지식과 전통을 말로 전수하는 대표적인 언어형식이다. 속담의 핵심 기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그에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충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세기 동안 축적된 경험에서 얻어진 인간의 지혜를 실질적이고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라고 달리 말할 수도 있다. 문화는 삶을 영위하는 안목과 지식, 태도 등을 계발·개선하기 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언어 표현과 의미, 의사소통 형태의 총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익명성과 집단성을 특징으로 하는 속담이나 속언 또한 이 문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적극적인 한 요소라 해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속담(俗談)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을 가리키며, 동의어로는 세언(世諺), 속설(俗說) 등이 있다. 또한 스페인 한림원 사전에서는 속담(refrán)을 'm. Dicho agudo y sentencioso de uso común[1]'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속담은 일상에서 생생히 살아 전해지는 교훈이자 규범이며, 언어학적으로는 특정 공동체의 언어적 특성을 담고 있는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특유의 익살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특정 사회 구조나 집단의 행태와 사고방식을 증거, 서술, 해석, 예측한다. 근본적으로는 돈과 기타 소유물, 인간이나 집단 간의 관계, 가족, 사랑, 권력, 죽음 등 인간의 일상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의 반영이다. 수천 년 전의 사회이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이든 간에 이와 같은 인간의 심리와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그 근간은 변하지 않았기에 많은 속담이 지금까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대를 걸쳐 구전되는 속담은 때로는 그 어원이 잊히거나, 사용 어휘나 내용이 시대에 걸맞지 않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담의 메시지와 재해석된 의도는 언중의 기억 속에서 일정 부분 전달되기 마련이어서 특히 젊은이들은 수동적인 속담 사용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속담보다는 기타 관용표현이 이들에 의해 빠르게 등장하고

1) 특히 스페인의 속담에 대한 관심은 그 역사가 매우 깊다. Pedro Vallés의 「Libro de refranes」(1549), Gonzalo Correas의 「Vocabulario de refranes y frases proverbiales y otras fórmulas comunes de la lengua castellana en que van todos los impresos antes y otra gran copia」(1627) 등을 보아도 그러하다. 스페인 한림원 최초의 사전(1726-1739)인 「Diccionario de la lengua castellana en que se explica el verdadero sentido de las voces, su naturaleza y calidad, con las frases o modos de hablar, los proverbios o refranes, y otras formas convenientes al uso de la lengua」에도 속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엿보인다. 이 같은 관심은 전통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2) 예를 들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속담은 종종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로 바뀌어 현대 사회의 세태를 설명하고는 한다.

사라지면서 급변하는 현대의 삶을 더 역동적으로 대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담은 시시각각 변모하는 인터넷과 방송통신매체의 효력에 밀려 구태의연하다는 평을 듣더라도 오늘날까지도 사회 일각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공신력을 전제로 하는 신문 매체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세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속담은 불변의 가치를 내포하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현실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화한다. 이러한 괴리 혹은 모순은 경제, 정치 등의 물리적인 세계와 사고방식, 가치체계 등의 무형의 세계가 다른 변화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케케묵은 속담 속의 상황이나 태도가 여전히 언중의 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사고나 행동방식, 언어사용행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속담들이 동일한 정도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며, 집단이나 지역, 세대, 성별에 따라 그 사용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일부는 여러 국가에서 같은 가치로 통용되는 반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속담들도 적지 않다.

스페인에서 속담에 대한 연구는 16세기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근래에 들어 Paremia[3]라는 명칭의 새로운 학문 분야로 분류되며 독립적인 장을 열어가고 있다. Paremia는 속담, 격언, 속언 등의 다양한 관용표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범주의 학문으로, Julia Sevilla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Sevilla Muñoz 1993; Sevilla & Cantera 2008; Cantera & Sevilla & Sevilla 2005, etc.). 현재는 스페인에서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정착했음은 물론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를 수용하는 추세이다. 또한 E/LE 교수법에서도 문화, 언어, 문학에 접목한 속담을 다양하게 활용한 교수

3) 그리스어 παροιμια에서 유래하여 스페인어에 유입되었다.

법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Peñate Rivero 1996, Toledo Botaro 1999, García Yelo 2006, Barbadillo 2006, Blanco & Moreno 1997, Sevilla Muñoz & Sevilla Muñoz 2005, etc.).

우리말의 경우, 불어학이나 국어학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속담 연구는 격언형식과 더불어 주로 수사학적 관점에 의해 통사구조 분석에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속담에 대한 정의라야 대략 '비유가 풍부한 교훈적 생략 형식' 정도로 인식되어 왔고 언어별로 속담의 수사학적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조, 즉 압운과 운율, 대칭구조, 생략구조, 파격구문 등에 대한 분석이 주된 경향이었다(강성영 2001, 2).

반면, 속담의 의미·화용론적 연구는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타 언어공동체와의 비교 연구는 사회·문화에 따른 가치의 다양성과 보편성 고찰에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나, 프랑스어나 일본어, 중국어 등과 한국어 속담과의 대조 연구를 소수 찾아볼 수 있을 뿐 충분하지 않다. 스페인어 속담과의 비교는 김우중(1988), 임효상(2009)의 연구가 있으나 방대한 속담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의 후속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더욱이 한국과 스페인 사회 모두 여성에 대한 보수적이고 편협한 시각이 전통적으로 팽배해있는 사회인만큼, 여성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고 배분했는지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고찰함으로써 두 언어공동체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흔히 '민중의 지혜'라고 불리는 속담의 영속적인 당위성과 진리에 대해서도 숙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음성언어로 표출되는 통념을 살펴봄으로써 두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관념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송재선의 「여성속담사전」(1995)과 Luis Junceda의 「Diccionario de refranes」(1996)에서 여성과 관련된 속담들을 조사대상으로 선택하였고, 그 일부를 예시하고 고찰하도록 하겠다.

Ⅱ. 속담 속의 여성

1. 속담의 기원과 특징

모든 문화에는 고유의 속담이 있다. 속담은 '글'이 아닌 '말'에서 비롯된 표현방식으로, 대부분의 속담이 담고 있는 관념은 국경을 모른다. 민간에 전승되어온 익명의 문화 자산의 일부로서 일상적인 삶에서 얻어진 민중의 지혜와 경험을 담고 있다. 유럽과 스페인의 속담은 성경이나 인도, 중동, 중국, 유태인의 우화, 그리스-로마 신화 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까마득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Fernández Poncela(2001, 36)와 Louis Combet(1996, 11)은 기원전 5천년 경에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만, 지중해 지역에서 속담이 쓰였다고 주장한다. 사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귀족 지배 계급과 전사들, 교회 성직자, 상인 및 평민 등으로 사회 계급의 분화가 일어났고, 바로 이 평민 계급이 속언이나 속담에 먼저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흔히 속담을 민중의 지혜로 부르게 된 것이다. 또한 그리스와 로마 작가들인 호머,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키케론, 오비디우스 등은 물론 셰익스피어, 에라스무스, 세르반테스, 몽테뉴도 작품 속에서 속담을 즐겨 사용했다.[4]

4) 속담의 기원이나 기능, 통사적 특징에 대한 고찰이 본고의 목적이 아니므로 관련 연구는 Combet(1996), Sevilla(1993, 2004, 2005, 2008)등을 참고할 것.

한편, 소소한 일상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세심한 시선으로 주변을 관찰한 결과 도출된 교훈이자 관념인 속담은 사실을 전제로 하는 신문이나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주 사용된다. 이는 '만고의 진리'로 인식되는 속담의 권위를 빌어 논지를 간략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재차 단언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담은 오히려 '큰 세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 속담의 경우, 성인・성녀의 기적, 마지막 심판, 마술 등 주변적인 것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있으니 신과 종교, 기독교의 근본 개념 등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속담은 그 수가 매우 적다. 역사에 대한 태도도 이와 유사하다. 국가의 명운이나 큰 전쟁, 기념비적인 사건, 역사적 인물들과 관련된 직접적인 속담을 찾아보기 어렵다. 속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민중의 관심은 일상이라는 범위를 초월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문학이나 예술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속담에는 제한된 사회 영역내의 분쟁이나 대립, 적대감에 대한 표현이 풍부하다. 부자와 빈곤한 자, 귀족과 평민,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 노인과 젊은이, 남자와 여자 등 작은 세계에 대한 높은 관심은 많은 수의 속담으로 이어진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속담을 만들어낸 언중은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말을 통해 전달하는 주체였고 속담을 그들의 표현 방법과 방어 수단의 하나로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법이나 권력자 앞에서의 조건 없는 복종, 위선, 질투, 지나친 순응주의도 속담에서 드러나는 언중의 일면이다.

속담의 특징에 대하여 Wotjak(1988, 538)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완벽하고 독립적인 구문이다.
- 축자적이거나 은유적 의미를 지닌다.

- 일반적으로 간결하고 생략된 형태로 쓰인다.
- 사상, 훈계, 욕구 등을 표현하며, 언중의 지혜에서 나온 경험을 담고 있다.
- 속담에서는 적어도 두 개의 개념을 연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속담은 특정한 경우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므로 격언과 다르다. 즉 어떠한 상황에도 다 쓰일 수 있다. 축적된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또한 형태적으로는 문어체이다.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속담은 관용적인 표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형태·통사적으로 고정된 구조이며, 많은 경우 전이된 의미를 갖는다. Cascón Martín(1995, 143)의 설명을 빌리자면, 스페인어의 어순은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보어의 순서이다. 보어가 직접목적보어인지 간접목적보어인지 상황보어인지에 따라 구성 순서의 차이를 보이지만 말이다. 이렇게 하여, 각 연어의 핵심어가 항상 한정사 다음, 수식어 앞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거의 모든 속담에서 이러한 어순이 무너진다. 대부분의 목적보어가 동사 앞에 위치하거나 tema의 위치, 즉 문두로 전위하여 강조 효과를 의도하는 유표적 어순을 보이기도 하여 의무적으로 동사에 전치된 대명사의 중복사용을 야기한다(A la mujer bigotuda, de lejos se le saluda / A la mujer fea, el hombre la hermosea / A la mujer muy casera, el marido bien la quiera / El vino y la mujer, el juicio hacen perder, etc.). 또한 간접목적보어의 전치현상도 발견된다(A buena mujer, poco freno basta / A la mujer casada, el marido le basta / A la mula y a la mujer, por el pico les va la hermosura, etc.). 이는 모두 직접이나 간접목적보어의 핵심어가 의미상 가장 중요한 mujer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Toledo

Botaro 1999, 715). 아울러 일반적인 경우에서처럼 상황보어가 동사 뒤가 아니라 앞에 위치하기도 한다(A la luz de la vela no hay mujer fea / Sin tacha ninguna, no hay mujer ni mula, etc.). 직접목적보어와 간접목적보어의 통상적인 순서가 뒤바뀌기도 한다(Pedir al hombre veras es pedir al olmo peras, etc.). 이는 언중에게 익숙한 운율을 따르기 위함으로 판단된다.[5)]

한편, 관사나 한정어 생략의 경우도 스페인어 속담에서 자주 발견된다. 예를 들어, 'a la buena mujer' 대신 'a buena mujer', 'la joven ventanera' 대신 'joven ventanera, no te fíes de la mujer, ni de la mula de alquiler' 대신 'no te fíes de mujer, ni de mula de alquiler'의 형태로 쓰이는 것이다. 동사가 생략된 'Del mulo, por detrás; del toro, por delante; y de la mujer, por todas partes'와 같은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생략된 동사구(tener cuidado)를 유추가능하다. 보통은 ser, haber, tener 처럼 동사의 의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속담은 관용표현의 전형적인 특성, 즉 자의와는 다른 전이된 의미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속담이 반어법이나 유머, 풍자의 효과를 노리기 때문으로, 예를 들어 'A buena mujer, poco freno basta', 'A la mujer y a la mula, por el pico les va la hermosura' 등의 속담에서 pico나 freno가 자의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은유나(A la mujer fea, el oro la hermosea) 중의적 표현(La mujer y la ensalada, sin aderezo no es nada)의 사용도 빈번하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속담은 기호화된 언어를 통하여 특정 사회・문화의 요소들을 가리키고 전달한다. 어떤 문화적 변인을 가지고 있든 간에 모든 사회에 골고루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특정 사회・문

5) 'Refrán' 자체가 '운율'을 뜻하는 고대 옥시탕어에서 유래하였고 프랑스어를 통해 스페인어로 유입되었다(Toledo Botaro 1999, 716).

화에만 편재(偏在)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속담에 내재된 문화 요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고찰은 각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는 손쉽고도 빠른 길이 될 수 있다.

2. 왜 속담인가: 속담 속 객체로서의 여성

속담은 언어기호를 통해 일반 민중의 삶속에서 탄생하여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의식을 나타낸다고는 하지만 Lázaro Carreter(1980, 214)는 '속담의 사회적 기능은 전통적으로 믿음, 조직, 풍습을 정당화하는데 기초하고 있다. 즉 언어에 녹아 흐르는 가치에 대한 서술이나 명령들을 통해 지배계급은 영속하기를 바랐던 행동 양식을 조절했던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더 이상 그 가치를 잃은 속담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성관련 속담에 내재된 성차별적 가치관의 근거는 서양 속담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찾고 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6절의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라는 구절에 잘 드러난 여성과 남성의 지위와 역할 차이는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념이었다. 이슬람이나 유태교의 교리 또한 성차별적 사회 질서 수립에 바탕이 되었으며, 이는 절대적인 진리처럼 수용되는 가치체계가 되어버렸다.

한국의 경우, 여성 비하적 관점의 속담은 유교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사회질서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일부종사(一夫從死), 삼종지도(三從之道), 칠거지악(七去之惡) 등의 규율을 강요하고 여성을 소인배로 취급했으며, 남존여비적 관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성은 태생적으로 남성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로 단정하였다(강성

영 2002, 박균섭 2000).[6]

이후 수세기를 걸쳐 각 공동체는 사회 권력에서 분리되어 피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여성에 대해 전형적인 상(想)을 만들고 그것을 대물림해왔는데, 이를 파급, 전수하는 것은 대대로 속담뿐만 아니라 전래 동화나 우화, 문학 작품, 전통 민요 등의 역할이었다. 여러 구전 형태 중에서 특히 속담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속담이 특정한 문화와 그 문화가 움직이는 사회에 내재된 주요 가치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때문이다. 속담이 생성되었던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역사·문화적인 크나 큰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표현이 여전히 쓰이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속담이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한편 언중을 설득, 조종하고 영속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둘째, 속담이 여성과 관련된 주제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여성 관련 속담의 수에 잘 나타난다. Calero Fernández(1999, 131-132)에 의하면 여성과 관련된 스페인어 속담이나 속언은 총 10,884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과거에 존재했었거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스페인어 속담 전체의 약 1/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15세기부터 현재까지 발간된 속담집을 집대성하여 65,083개에 이르는 속담을 분야별로 정리한 Martínez Kleiser의 속담집에는 1,610개의 속담이 'Mujeres'라는 명목 하에 실려 있어 30여개 밖에 안 되는 'Hombres' 관련 속담과 대조를 이룬다. 이 외에도 '결혼', '결혼 욕구', '어머니', '독신' 등 여성의 태도나 천성, 욕망, 의무 등에 대한 속담도 많아 실질적으로 여성 관련 속담의 수는 훨씬 많다. 한편, Fernández Poncela(2000, 139)는 스페인어 속담에서 여성의 선천적인 결함 85개를 발견할 수 있는 반면

6) 태생적으로 미숙하고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인 여성에 대해 속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자는 서발 앞도 못 본다, 여자는 백살을 먹어도 수염이 안 난다, 바깥일은 팔십 리고 집안일은 이십 리다, etc.

장점은 고작 16개 달한다고 설명하면서, 여성 관련 속담이 주목을 끄는 것은 그 엄청난 숫자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또한 일견 여성을 옹호하거나 장점을 부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속담도 사실은 남성과 가부장적인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덕목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 관련 스페인어 속담은 한국어 속담과 마찬가지로 반(反) 여성적이라고 단정해도 무방하다. 물론 이러한 속담을 양산한 측이 남성이라고 해서 여성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성 또한 집단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속언이나 속담을 진실로 믿고 침묵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적어도 그 속담이 발생한 시대와 장소에서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어 속담에서도 여성관련 속담이 남성을 언급하는 경우보다 훨씬 다수를 차지하는데(송재선 1995),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이나 질투조차 할 수 없는 정물 정도로 취급당했던 지난 세월을 생각한다면 전혀 의아하지 않은 결과이다.

속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성별에 따른 규범이나 전형적인 모델은 '착한 여자'와 '나쁜 여자',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정의로 이어진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나 고정관념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이와 관련하여 Octavio Paz는 『El laberinto de la soledad』(1992, 13)에서 스페인 문화가 여성에 대해 매우 단순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것은 'la mujer en casa y con la pata rota', 'Entre santa y santo, pared de cal y canto'에서 폭력적이고 간결하게 드러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에 따른 역할 분배는 속담을 통해 언제나 일반 대중의 삶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표출되었다. 언중의 삶에서 속담은 주요한 도덕적・설명적・교육적 메시지의 전달자 기능을 수행한 셈인데,

가장 기초적인 사회 집단의 정체성과 위치를 규정하여 기존의 규율에 따라 체계를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을 응집하는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속담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전통적인 민속 유산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는 언어의 일부이기도 하다.

'Entre mil hombres he encontrado uno bueno; entre todas las mujeres ni una'. 이 속담에서 보다시피 스페인에서 '착한 여성'은 거의 없다.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속담 속의 여성은 주로 수다스럽고 거짓말에 능하며 악독하고 악마에 견줄 정도로 위험하다.[7] 여성에 대한 이러한 편견 혹은 평가절하와 함께 조용하고 신중하며 순종적이고 깔끔하고 가정적이고 근면한 것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여성이 지켜야할 의무나 역할 또한 단정 짓고 있다. 이렇게 고정적인 틀에 묶여있는 여성상은 결국 그들의 지배자 즉 남성의 편의에 온전히 부합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어의 경우, 여성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속담의 경우에는 주로 어머니가 주인공이며, 이 어머니는 가정에 온기를 주는 여왕이지만 동시에 가정이라는 테두리의 포로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해, 스페인어 속담 속의 여성은 어머니와 가정주부일 경우에만 한정된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이 같은 상황은 한국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하배(2001, 188-189)는 소외란 "사회적 행동 능력이 '적어' 수동적이고 객체적이며 '작게' 행동하고 사고하는, 즉 사회적 삶의 실천에서 '작고', '적게', 객체적으로 머무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외란 우리 자신의 삶의 조건들이 우리 '자신'의 계획과 통제를 벗어나 어떤 다른

---

7) 다음과 같은 속담들이 그 일례이다: Por la mujer entró el mal en el mundo / Lo que puede el diablo lo puede la mujer / Cuando Dios se hizo hombre, ya el diablo se había hecho mujer / Dos hijas y una madre, tres demonios para un padre / Donde reina la mujer, el diablo es primer ministro, etc.

‘더 큰 타자(들)’에 의해 ‘규정 당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 ‘여자 팔자는 남자 손끝에 달렸다’에서 보다시피 여성은 타인에 의해 일생이 정해지거나 뒤바뀌는 수동적 존재였고, 이런 의미에서 속담 속의 여성은 한 소외된 삶의 형식을 전형적이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좋은 일례라 하겠다. 그러나 이하배(2001, 197)는 이런 속담이 수직적 사회 질서 속에서는 사실이지만 모든 시대와 장소, 모든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주장도 아니고, 비판적 시각에서는 극복되어져야 하고, 또한 일정한 사회화 질서에서는 극복될 수 있으므로 동시에 ‘허위’라고 주장한다. 이는 본고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 개념과 일치한다.

Ⅲ. 한국어와 스페인어 속담에 나타난 여성의 자리와 역할

1. ‘착한’ 여성과 침묵

한국이든 스페인이든 여성은 자신보다 사회적 능력이 더 뛰어난 상대인 남성에게 항상 양보하고 순종하고 ‘조화로운’ 가정을 꾸려가도록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낮추는 역할을 사회화 과정에서 떠안았다. ‘안(安)’이라는 한자에서 보다시피,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평안이 보장된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사고방식 내에서 여성은 성차별적 사회 질서에 따라 수동적이고 자기 결정권이 없는 존재였다. 이하배(2001, 194)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와 같은 노래 제목에서 나타나는 피선택적 존재로서의 여성 표현에 대해 “문제는 일정한 의미를 담은 이런 가사 표현들이 비판적으로 걸러지지 않고, 많이 그리고 깊이 우리의 일상적 삶에 침투하여 우리의 일상적 사고와 행동 방식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차별적 사회화는 언중이 대대로 즐겨 사용하는 속

담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현존 질서를 재생산하는데 이용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한 사회·문화가 속담을 통해 고착화했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상적인 여성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 속담 속의 착한 여성. 좋은 여성, 이상적인 여성이란 조용하고 신중하여 말을 많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의 입에도 오르내리지 않는 여성이다. 반대로, 수다스럽고 남의 험담을 즐기며 남의 험담 대상이 되기도 하는 여성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수다스러움을 칠거지악 중 하나로 규정해놓은 한국에서는 물론 스페인에서도 말수 적고 조신한 행실[8]은 남성과 그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는 당연히 명령 하달식의 의사표현과 양성 간의 대화 단절, 고립과 복종의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다음의 속담들을 보자.

La buena mujer, sin fama, ni buena ni mala.

Mujer en la ventana, murmuradora y murmurada.

La mujer ni vista ni conocida.

---

8) 이와 관련하여 특히 아름다운 여성을 경계하였는데, '착한' 여자라는 관념에서 여성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오히려 그에 상반되는 자질로 간주된다. 스페인어의 경우, 심지어 광기나 무지에 견주기도 한다(Mujeres hermosas y con talento, una entre ciento; y si mejor lo he de decir, una entre mil / Mujer hermosa y con talento, parece cosa de cuento / Mujer bella en exceso, mucho sexo y poso seso. / 예쁜 여자치고 얼굴 값하지 않는 여자 별로 없다. / 제 얼굴 자랑하는 여자는 행실이 부정하다. / 여자는 잘나도 욕먹고, 못나도 욕먹는다.) 특히 부인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척도로 판단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La que mucho cuida su cara, poco cuida su casa. / Amor de fea, no tiene contra. / Quien quisiera mujer hermosa, escójala en su casa, y no en la boda./ 아내는 부엌에서 얻고, 남편은 글방에서 얻으랬다. / 미인 소박은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다. / 아내는 눈으로 고르지 말고 귀로 고르랬다. / 딸을 보지 말고 어미를 먼저 보랬다. / 추녀는 살수록 정이 들고, 미인은 살수록 정이 떨어진다.)

Mujer recatada, muy codiciada.
Mujer discreta ni en ventanas ni en puertas.
La mujer buena no tiene ojos ni orejas.
Aquella es buena y honrada que está en casa sepultada.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여자 소리가 울 넘어가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여자(아내)의 말은 잘 들어도 패가하고 안 들어도 패가한다.
여자는 말을 안 하는 게 첫 수.
여자가 말이 많으면 장맛이 쓰다.
여자가 유난히 말이 많으면 과부된다.

침묵은 주종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이다. 의견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은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있어 결코 침묵이 미덕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침묵은 또 다른 속담인 'Quien calla otorga'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의의 다른 표현이기도 했다. 어쨌든 다변을 경계하고 눌변을 권장한 유학사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 사회이든(방운규 2004, 64) 그렇지 않은 스페인 사회이던 간에 공통적으로 여성의 말을 경계하거나 못마땅한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2. 여성에게 주어진 영역과 역할

1) 여성의 영역

속담 속의 이상적인 여성은 친절하고 정절을 지키며 순종적인 여성인 동시에 가정을 지키며 요리나 바느질 같은 가사를 완벽하게 해내는 여

성이기도 하다. 속담은 여성이 있어야 할 장소는 가정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역할까지 확실하게 규정해놓고 있으며, 스페인어의 경우, 이러한 여성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La mujer en el hogar, sin salir ni a trabajar.
La mujer y la gallina, caserina.
La mujer honrada, la puerta cerrada.
En la calle están las malas y las buenas en sus casas.
A la mujer en su casa nada le pasa.
La mujer y el vidrio siempre están en peligro.
La doncella honrada, la pata quebrada y en casa.
Los negocios de la mujer buena, dentro de casa y no fuera.
A las romerías y a las bodas van las locas todas.
Los fundamentos de la casa son la mujer y el buey.
No hay dolor, que la mujer no sepa hacer menor.
Casa en que no suena chapín, vida ruín.

질그릇과 여자는 내돌리면 깨진다.
유리와 처녀는 깨지기 쉽다.
여자가 바깥일에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
여자가 제 고을 장날을 알면 집안이 못산다.
솥뚜껑 운전수다.
무하고 여자는 바람 들면 못 쓴다.
아내 잘 만나면 평생 복이다.
여자는 집안 귀신 노릇만 하다 죽는다.

위에서 보았다시피, 가정 내에만 머무르는 여성이 '착한' 여성이다. 또한 스페인어의 경우,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여성의 안전과 성공적인 결혼이 담보된다고 충고한다. 가정 내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식의 속담은 가정 밖에서 일하는 여성이 직장이나 기타 장소에서 겪게 되는 고초나 횡포를 합리화하는데 지금까지 이용되기도 한다.

La mujer y la oveja, a casa antes de que anochezca.
La mujer escondida tiene estrella favorecida.
La rosa en su rosal, como la doncella en su lugar.
Mujer discreta, la que ni en ventana ni en puerta.
A la buena en su rincón no falta demandador.
El buen paño en el arca se vende.

속담은 착한 여성을 만드는, 즉 가정 내에만 머무르는 여성을 만들기 위한 여러 방법 또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욕설이나 폭력 등의 강제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라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충고이자 명령이며, 아울러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까지 명시하고 있다[9]. 이성이 없

9) 스페인어 속담에서 집 밖에서 일하는 유일한 여성으로 수록된 것은 창녀이며, 어머니나 주부의 역할 이외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 속담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노동과 두뇌는 가치 없다는 판단 하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여자를 경계하고 큰일에는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적극적인 생활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여성을 멸시하는 사상은 무지하고 열등한 여성을 집 안에 유폐한 채 남성의 편의대로 이용하겠다는 강압적 자세와 다름 아니다. 그 결과, 여성의 잠재력과 개인의 능력을 무시한 사회가 잃어버린 것이 작다고는 말할 수 없다(Las mujeres hilen y no estudien / La mujer más avisada, o sabe poco o sabe nada / La marisabida nunca falta quien de ella diga / Talentosa y fea van por la misma verea / Mujeres y libros, siempre mal avenidos / De mujer resabida, apártate en seguida / 여자가 너

는 존재로 판단했던 여성을 짐승처럼 다루는 것은 합당한 일로서 오랜 세월동안 사회적으로도 묵인되어 왔다. 오늘날 이러한 속담들은 한국이나 스페인 사회에서 가시적으로 통용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이 두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는 가정 폭력은 의식의 변화까지 이르지는 못했음을 증거한다.

Ojo alerta con la moza y con la puerta.
Un saco de pulgas guardaré, pero a guardar moza no me obligaré.
A tu hija la más lista, no la pierdas de vista.
Mujer que no para en casa, cadena en el pie y las manos en la masa.
A la mujer ventanera, tuércele el cuello si la quieres buena.
A la moza andadera, québrala la pierna y que haga gorguera.
La mujer en casa, pelada y descalza.

명태와 여자는 두드려야 부드러워진다.
여자 고집이 센 것은 몽둥이가 약이다.
여편네는 사흘만 매질을 않으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
여자 딱딱한 것과 두부 딱딱한 건 쓸모가 없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속담에서 여성은 항상 가정 내에 머물러야만 한다. 특히 주방 및 가사가 이루어지는 곳을 벗어날 수 없다. 다음 속담을 보자.

무 알아도 팔자가 세다 / 여자 날뛰고 안 망하는 집안 없다 / 아내가 남편보다 너무 똑똑하면 집안이 망한다 / 잔꾀는 여자가 많고 큰 꾀는 남자가 많다 / 여자가 활수면 벌어들여도 시루에 물붓기다 / 딸자식 잘난 것은 갈보 나고, 논밭 잘난 것은 신작로 난다. 치마자리가 똑똑하면 승전막이 갈까 / 여자가 버는 것은 쥐벌이다.

La rosa en el rosal; la uva en el lagar; y la mujer, con escoba y delantal.

Busca mujer que sepa guisar y coser.

La mujer hatera y el hombre cualquiera.

La mujer y la sartén, en la cocina están bien.

La que luce en la cocina, no luce con su vecina, ni a cosas malas se inclina.

여자의 소매는 마를 새가 없다.

한편,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속담에서 제시하는 여성상에 부합하는 여성을 현실에서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페인어에서는 이러한 여성을 '보물'로 칭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물'을 발견하려면 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고, 만일 찾아냈다 하더라도 금은보화나 기타 소유물을 지키듯 지켜야만 한다.

Saber elegir buena mujer, es mucho saber; pero sin mucho examen no puede ser.

La mujer buena es a la vez perla, plata y oro; pero, ¿dónde se encuentra ese tesoro?

La mujer buena, leal y con decoro es un tesoro.

Mujer obediente y honrada, no hay joya en el mundo que tanto valga.

A la mujer y a la tela a la vela.

La mujer hacendosa es corona su marido.

2) 여성의 역할

앞 장에서 보았다시피, 여성은 부엌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사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스페인어 속담은 경계하고 있는 반면, 한국어 속담은 여성의 신세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다. 스페인어 속담의 경우, 일반적인 여성을 대상으로 경계나 교훈을 주는 반면 한국어 속담에서는 여성이 특히 가족 관계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아내, 어머니, 딸, 며느리, 시어머니, 첩 등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함축적으로 그 역할과 특성이 표현된다. 즉 스페인어 속담에 비해 한국어 속담 속의 여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역할 구분이 되어있다.[10] 형태상으로도 '~된다, ~안 된다' 나 '~한다, ~이다, ~있다' 등의 명사 결어가 주를 이루며 확언이나 단정의 내용을 나타낸다.

먼저, 아내의 역할에 대한 속담을 살펴보자. 멀지 않은 과거까지도 가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을 강요받았던 여성은 근면하고 가사에 능할 뿐만 아니라 직접 책임을 지고 능숙하게 관장할 줄도 알아야했다. 이러한 사고방식 내에서 여성의 임무완수는 오로지 남편이나 자식과 같은 타인을 위한 것이며, 심지어 이를 위하여 잠을 잘 시간조차 없다고 속담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아내[11]가 되어야만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직접적인 스페인어 속담과 달리 한국어 속담은 이를 암시하거나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10) 이외에도 과부, 동서, 처녀, 해산녀, 기생, 무당 등에 대한 속담이 있으나 직접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속담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1) 남자들의 탐욕은 첩이라는 역할의 여성을 낳았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특히 한국에서는 여성을 소유물이나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공공연히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부인 이외의 여자를 들이는 것을 당연시했다(본처는 소요, 첩은 여우다, 첩의 정은 삼 년이고, 본처의 정은 백년이다, 첩은 돈 있을 때 첩이다, 집안이 편하려면 계집을 하나만 얻으랬다, 첩의 살림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길쌈 잘하는 첩).

El amor de la mujer, la ropa del marido se echa de ver.
A la mujer muy casera, su marido bien la quiera.
La buena esposa, limpia, sana y hacendosa.
La que a su marido quiere servir, ni puede, ni quiere dormir.
La que es de su casa, lava, limpia, cose, guisa y amasa.
El pie en la cuna, las manos en la rueca, hila tu tela y cría tu hijuela.
La mujer buen aliño, hilaba y devanaba y vendía vino y daba la teta al niño.

남자가 앓으면 집안이 망하고 여자가 앓으면 살림이 안 된다.
안 안심이 좋아야 바깥양반 출입이 넓다.
아내 나쁜 것은 백 년 원수, 된장 신 것은 일 년 원수.
착한 며느리도 악처만 못하다.

따라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여성이 되어야 함에는 틀림없다. 한국어에서는 이를 따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페인어 속담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남성이 지니고 있고,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을 수직적인 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En casa sin mujer, ¿qué gobierno puede haber?
La mujer es el guardián de la casa.
Donde hay gallo no manda gallina.
Mientras en mi casa me estoy, rey me soy.
En mi casa, yo me soy rey y Papa.
La mujer manda solo en la cocina.

La mujer debe gobernar la casa y el marido la caja.

집안에는 두 가장이 없다.
남자가 여자에게 눌리면 집안이 안 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남편은 두레박이요 아내는 항아리다.

한편, 가정 내에서는 안주인이자 부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스페인어 속담에서는 이를 지극히 칭송하고 있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어머니-자식 간의 끈끈한 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자간의 정을 당연시하여 사실적인 측면을 서술하는 한국어 속담과는 달리 스페인어 속담은 어머니를 절대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sa sin madre, río sin cauce.
Seas buena madre, que lo es al aire.
Madre muerta casa deshecha.
A quien tiene madre, no hay que llorarle.
De la mujer que es madre, nadie mal hable.

여자는 남편 떨어져서는 살아도 어린 자식 떨어져서는 못 산다.
여자 팔자는 자식을 낳아봐야 안다.
자식 떼고 돌아서는 어미는 발자국마다 피가 고인다.
어미는 좁쌀만 씩 벌어 오고 아들은 말똥만 씩 먹는다.
늙은 아이 어미 석자 가시 목구멍에 안 걸린다.

유교의 영향을 받아 대를 잇고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아들을 낳는 것은 한국 여성의 절대적인 임무였다. 따라서 딸은 쓸모없고 홀대받는 존재였는데, 물론 스페인은 이와 상황이 다르지만 딸을 '산통의 헛수고'에 비유한 속담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스페인에서도 딸은 아들만큼 중시되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Parto largo, y parto malo, hija al cabo.
A la fea, el caudal de su padre la hermosea.
A la hija mala, dineros y casalla.
Tres hijas y una madre, cuatro diablos para el padre.
Hija hilandera, hija casadera.
Madre holgazana saca hija cortesana.
Quien tiene un hijo hembra, calle la lengua.

딸자식은 도둑년이라.
딸이 셋이면 문을 열어놓고 잔다.
딸 셋을 여의면 기둥뿌리가 패인다.
딸의 굿에를 가도 자루 아홉은 가지고 간다.
딸의 차반 재 넘어가고 며느리 차반 농 위에 둔다.

딸이 자라 한 남성의 아내이자 한 여성의 며느리가 되고, 세월이 흐르면 시어머니가 된다. 이런 역할의 순환은 한국어에서 여성 관련 속담 중에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다음과 같은 속담들을 낳았다.

Arremangóse mi nuera, y volcó en el fuego la caldera.

Fui nuera, y nunca tuve buena suegra; fui suegra, y nunca tuve buena nuera.

A la muela se ha de sufrir, lo que a la suegra.

Acuérdate, suegra, de que fuiste nuera.

Obra comenzada, no te la vea suegra ni cuñada.

Suegra, ni aun de azúcar es buena.

Suegra, ninguna buena, y una que lo era, quebróse una pierna.

못난 며느리 제삿날 병난다.

대문턱 높은 집에 정강이 높은 며느리 들어온다.

동정 못다는 며느리 맹물 발라 머리 빗는다.

고양이 덕은 알고 며느리 덕은 알지 못한다.

시어미가 오래 살면 개숫물 통에 빠져 죽는다.

저녁 굶은 시어미 상이다.

며느리 시어머니 될 날 있다.

며느리 자라 시어미 되니 시어미 티 더 한다.

한국사회의 고부간의 갈등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스페인의 사위-장모의 편하지 않은 관계와 대비적으로[12] 여성의 영역인 가정 내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강자와 약자의 일방적인 관계였다. 며느리-시어머니의 역할은 세월이 지나며 대물림되는 것이지만 이들 간의 관계는 끊임없는 가사노동과 출산, 길쌈 등으로 지친 며느리의 입장과 며느리로서의 고된 세월을 지나 지배자의 역할을 맡게 된 시어머니의 역할, 이 두 입장에서

12) 스페인어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위나(Quien al sentarse dice "¡ay!", y al levantarse "¡upa!", ese es el yerno que a mí no me gusta) 장인(Jo, que te estrego, burra de mi suegro)과 관련된 속담도 있다.

비롯된 수많은 속담들을 탄생시켰다.

결론적으로, 한국어와 스페인어 속담은 공통적으로 여성이 있어야할 자리와 역할, 여성이 행해야 할 일에 대해 매우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속담은 여성으로 하여금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대로 지속시키는 기능을 해왔던 것이다. 간혹 결혼에 대한 회의나 남편을 괴롭히는 방법 등에 대해 산발적으로 언급하고는 있으나 여성의 권리 찾기나 자아실현의 필요성에 대한 교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Ⅳ. 결론

모든 속담은 시대의 정신세계와 도덕관념의 소산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적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 체계를 보증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판단 하에 본 연구는 출발했다. 기존의 사회 질서와 가치는 속담을 통해 의심 없이 수용되고 재생산된다. 더군다나 속담이 언중에게 행사하는 설득력은 민중의 지혜로 간주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세대에 걸쳐 검증되고 전수되면서 절대적인 사실만을 말하고 있다고 믿어왔다. 인간이 가져야 하는 덕목인 겸손이나 신중함, 진솔함, 근면함을 권장하고, 탐욕이나 질시, 허영, 게으름을 경계하고, 우정이나 사랑, 이웃과의 친교를 칭송하는 속담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성 관련 속담의 경우 '민중'의 지혜가 낳은 결과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중'이란 누구를 가리키며 어떤 의도로 그 속담이 탄생하여 전승되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은 생물학적인 것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

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날 남녀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해온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간단히 말해, 남녀의 역할 구분은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학습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속담은 시대를 막론한 진리가 아닌 특정한 시기의 가치체계와 일반화된 의식을 반영하는 음성언어적 표현일 뿐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속담은 사회적으로 각 성의 정체성이나 역할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상(想)을 만들어내고 전파하는데 공헌하였는데, 속담에서 '이상적인 여성'은 그 속담이 만들어질 당시의 사회·문화적 인습과 도덕률에 부응한다.

속담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이상적인 여성이란 유교적 기준에 따라 말수가 적고 소극적이며 순종적인 여성으로서 소유물에 가까운 취급을 받았는데, 가정 내 역할이 딸에서 아내, 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 등으로 바뀌며 이에 따라 다양한 속담이 그 처지를 단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속담의 탄생 배경에는 여성의 노동과 경험이 뒷받침되어 있음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스페인 여성 또한 말수가 적고 지성적이지 못하여 남성의 도움이 없으면 홀로 설 수 없는 부속품 같은 존재로 간주되었다. 다만 스페인어 속담은 여성의 역할을 한국어의 그것과 같이 세분하지 않으며, 또한 남성의 욕망과 어머니의 성스러움, 여성의 소중함 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러한 속담을 즐겨하는 언중이 남성이라는 사실은 여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어나 스페인어에서 모두 여성을 부정적 인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으나, 종속적이고 성차별적인 관점이 더 강하고 같은 여성끼리도 수직적 관계로 절대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한국어 속담이다.

결론적으로, 속담에서 말하는 여성상이나 그 역할은 과거의 풍습이나 관념의 잔재이며, 여성이라는 성별이 한 인간의 성격이나 자질, 지적 능

력, 직업, 사회적 행동이나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생물학적인 성(sexo)과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남녀 간의 구분(género)을 혼동한 결과이다. 과거 한국과 스페인 모두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인 구조의 가정 형태였고, 여성을 하등한 존재로 보는 이 가부장적 체계는 남-여 간의 관계에서 억압의 도구로 작용했다. 속담에 실려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여성의 역할은 현대에 들어 그 당위성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으나 아직도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습을 속담을 통해 적나라하게 살펴봄으로써 현실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강성영(1998),「속담표현의 의미・화용론적 특성 연구」, 불어불문학연구, 37호, pp.605-621.

_____(2001),「의미・화용론적 관점에 의한 프랑스어 속담과 우리말 속담 비교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34호, pp.1-20.

_____(2002),「프랑스 속담과 우리나라 속담에 있어서 성차별 요소 및 그 의미 기능 비교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40호, pp.1-22.

김우중(1988),「스페인의 여성 속담고: 등장인물, 사물, 동물을 중심으로」, 여성문제연구, 16호, pp.259-271.

박균섭(2000),「유교경전의 여성교육관 연구」, 한국교육, 27호, 2권, pp.21-42.

방운규(2004),「유교경전의 여성교육관 연구」, 겨레어문학, 32호, pp.51-83.

송재선(1995),『여성속담사전』, 서울: 동문선.

심재기(1982), 「속담의 종합적 검토를 위하여」, 관악어문연구, 7호, pp.215-244.

이하배(2001), 「우리 속담에 나타난 성차별의 사회화: 유교적 사회화의 관련 속에서」, 한·독사회과학논총, 11호, 1권, pp.185-206.

임효상(2009),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속담 비교 분석 연구」, 스페인어문학, 52호, pp.105-126.

Barbadillo de la Fuente, M.ª T.(2006), "Presupuestos didácticos para la enseñanza de los refranes a través de *El Quijote*", *Paremia*, 15, pp.141-150.

Beltrán, M.ª J.(1996), *Modismos en su salsa: modismos, locuciones, expresiones fijas en sus contextos*, Madrid: Arco Libros.

Blanco, X. y L. Moreno(1995), "La explotación pedagógica del proverbio en clase de francés lengua extranjera(Una experiencia en el marco del proyecto ADELA)", *Paremia* 4, Madrid, pp.141-147.

Calero Fernández, M.ª Á.(1999), *Sexismo lingüístico. Análisis y propuestas ante la discriminación sexual en el lenguaje*. Madrid: Narcea.

Campos, J. G. y A. Barella(1996), *Diccionario de Refranes,* Madrid: Espasa-Calpe.

Cantera Ortiz de Urbina, J., Sevilla Muñoz, J., Sevilla Muñoz, M.(2005), *Refranes, otras paremias y fraseologismos en "Don Quijote de la Mancha"*, Burlington(Vermont): University of Vermont.

Casares, J.(1992), *Introducción a la lexicografra,* Madrid: CSIC.

Cascón Martín, E.(1995), *Español coloquial. Rasgos, formas y fraseología de la lengua diaria,* Madrid: Edinumen.

Celdrán Gomáiz, P.(2004), *Diccionario de frases y dichos populares*, Madrid: Aderabá.

Combet, L.(1996), "Los refrenes: origen, función y futuro", *Paremia*, Vol.5, pp.11-22.

Coseriu, E.(1977), *Principios de semántica estructural*, Madrid: Gredos.

Fernández Poncela, A. M.(2000), "Imágenes masculinas y femeninas en el refranero", *Revista de Folklore*, Vol.232, pp.139-144.

_____(2001), "El refranero popular: enseñanza y representación social", *Cuadernos cervantes*, Vol.36, pp.35-37.

Forment Fernández, M.ª del M.(1998), "La didáctica de la fraseología ayer y hoy: del aprendizaje memorístico al agrupamiento en los repertorios de funciones comunicativas", en *Actas del VIII Congreso Internacional de ASELE*, Alcalá de Henares, Universidad de Alcalá de Henares, pp.339-347.

García Yelo, M.(2006), "La didáctica de las paremias en Gramática contrastiva", en *Paremia*, Vol.15, pp.83-92.

Junceda, L.(1996), *Diccionario de refranes*, Madrid: Espasa-Calpe.

Lázaro Carreter, F.(1980), *Estudios de Lingüística*(*Literatura y folklore: los refranes y Los refranes: ¿Espontaneidad o artificio?*), Barcelona: Crítica.

Martínez Kleiser, L.(1982), *Refranero general ideológico español*, Madrid: Hernando.

Martínez Marín, J.(1996), *Estudios de fraseología española,* Málaga: Ed. Librería Agora.

Navarro, C.(2004), "Didáctica de las unidades fraseológicas"

http://www.edinumen.es/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03&Itemid=38&lang=es(2010.12.22)

Nikoláeva, J.(1994), "Concepto de espacio proverbial en español", *Paremia,* 3, pp.37-44.

Paz, Octavio(1992), *El laberinto de la soledad*, 2ª ed.,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Peira, P.(1988), "Notas sobre la lengua de los refranes." *Homenaje a Alonso Zamora Vicente,* Vol.1, pp.481-490.

Penadés Martínez, I.(1999), *La enseñanza de las unidades fraseológicas*, Madrid: Arco Libros.

Peñate Rivero, J.(1996), "El refrán en la enseñanza del español lengua extranjera: 'Dime tus refranes y te diré quién eres'", en *Actas del Sexto Congreso Internacional de ASELE*, Universidad de León, pp.289-295.

Prieto, M.ª(2006), *De modismos y metáforas culturales*, Madrid: Edinumen.

Real Academia de la Lengua Española(2010), *Diccionario de la Real Academia de la Lengua Española*, http://buscon.rae.es/draeI/

Ruiz Gurillo, L.(2002), *Ejercicios de fraseología*, Madrid: Arco Libros.

Sevilla Muñoz, J.(1993), "Las paremias españolas: clasificación, definición y correspondencia francesa", *Paremia,* 2, pp.15-20.

_____ y Sevilla Muñoz, M.(2004), "La técnica temática en la traducción de refranes y frases proverbiales", en *El trujamán*, Centro Virtual del Instituto Cervantes, http://www.cvc. cervantes. es/ trujaman (2011.01.19).

_____ y Barbadillo de la Fuente, M.ª T.(2005), "El máximo y el mínimo

paremiológicos y sus aplicaciones didácticas", en Pamies Bertrán, A. y Luque de Dios, J.(eds.), *La creatividad en el lenguaje: colocaciones idiomáticas y fraseología,* Granada: Método, pp.1-13.

_____ y Cantera Ortiz de Urbina, J.(2008), *1001 refranes con su correspondencia en alemán, árabe, francés, inglés, italiano, polaco, provenzal y ruso*, Madrid: Ediciones Internacionales Universitarias.

Toledo Botaro, M.ª I.(1999), "El refranero español: un reto para los alumnos de E/LE", *Actas X de ASELE*, pp.713-720.

Wotjak, G.(1988), "Uso y abuso de unidades fraseológicas", *Homenaje a A. Zamora Vicente* 1, Madrid, Castalia, pp.535-548.

인터넷 성경 http://www.holybible.or.kr

네이버 국어사전 http://dic.naver.com

논문투고일자: 2011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자: 2011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6월 15일